

中대사 도발적 한국 위협... 이재명 '굴종외교' 논란

싱하이밍, 李대표 만나 “中 패배에 베팅 나중에 후회” 李, 항의 한마디도 안해... 국익 훼손에 수수방관 일관 與 “尹정부 깎아내리기만 하면 굴욕은 괜찮다는 건가”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에서 한국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를 두고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리”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싱 대사를 향해 페이스북에 “싱 대사에게 우리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하라는 최후통첩을 하고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따르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가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

교관의 전력, 또는 비정상적 외교활동 등을 문제삼을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의 경우 해당 외교관의 본국은 그를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게 된다.

여당은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전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중국을 끌어들이더라도 윤석열정부를 악마화하려는 이 대표의 정치적 술수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이 대표의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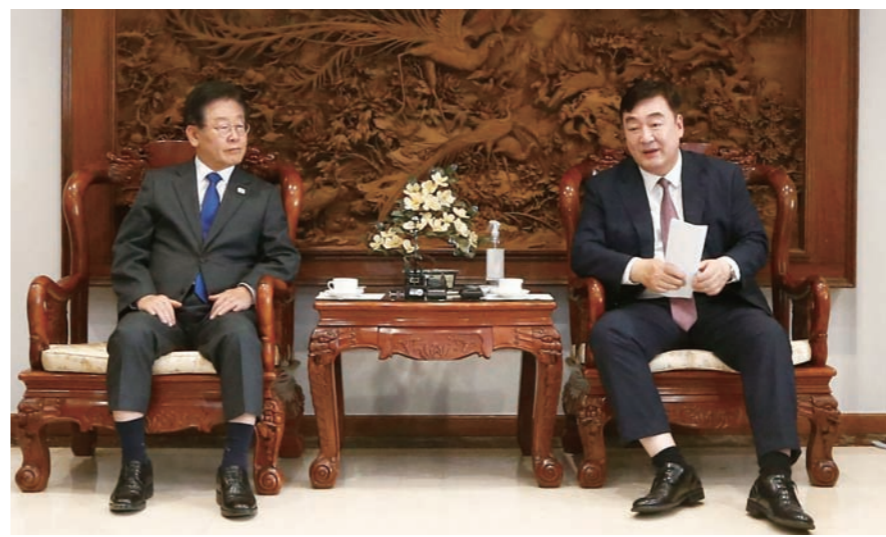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야당 대표라지만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중국 땅인 대사관저에 가서 한 것은 국익을 훼손한 행동이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8일 싱 대사는 이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미국과 동맹 격상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행보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 같은 싱 대사의 궤변에 항의 없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가능하면 공동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가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 국장급의 싱 대사를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이 대표가 직접 찾아가 예방하는 모습 자체가 ‘굴종 외교의 현장’이라는 쓴소리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최근 문제가 된 중국의 5기

수도로 삼고 있다”고 적반하장식 대답을 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도발적 언행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싱 대사 개인에 대해서도 한-중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이 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싱 대사에 대해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라며 “야당 대표로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선관위·후쿠시마 놓고 공방 예고

여야가 12일부터 3일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정치적 쟁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채 의혹’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을 두고 감사원 감사 및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노태우 선관위 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당은 최근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대북안보관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찬 회동 중 나온 싱 대사의 논란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두고도 점입 문제인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특히 선관위 관련 의혹들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의 기로에 (선관위가) 서

국힘, '자녀 특채·北 해킹 은폐' 의혹 공세나 설 듯
민주, '이동관 아들·방송 장악·노정 갈등' 강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있다”면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광장히 엄중하게 사태를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에서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기회

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함께 외교안보를 비롯한 민생 현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께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당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외교·통일 분야 질문자로 나서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교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톡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 김 의원을 비롯해 안병길·김승수 의원이, 경제 분야에 윤상현·이현승·홍석준·전봉민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김예자·윤주경·백종현·김용관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선관위 감사 주장에 대한 ‘선관위 장악 시도’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밖에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그과정에서 나타난 노조와 정부 간 갈등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기자thnoh@skyedaily.com

'자녀 특채만 수용' 선관위에 與 "전면 감사 받아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채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은 “전면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자녀 특채 채용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다. 여론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버티지 못한 것이다. 2일 선관위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를 결정했다.

이를 일주일 만에 ‘거부’에서 ‘부분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노태우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채 채용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별개로 감사원이 선관위에 감사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돼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절대다수의 국민적 의견으로 드러난 ‘자녀 특채 의혹’에만 한정해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업무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꼴이 됐다.

이 같은 선관위의 ‘한발 물러선 입장’에도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받으라고 촉구했고, 거부할 경우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다준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홀피스 올인원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회계/세무관리
 - 인사/급여관리
 - 기업연락대신서
 - 화상회의
 - 내PC 원격접속
 - 팩스
 - 메일
 - 협업포스
 - 근태관리
 - 경비청구
 - 전자결재
 - 알림관리
 - 일일관리
 - 노트
 - 웹스토리지
 - 조직도
 - 거래처관리
 - 명함관리
 - 문서협업출판
 - T Edge
- * 홀피스 올인원팩 패키지 종류에 따라 세부 서비스 구성은 달라집니다.